

가을, 스님들 수상집 읽노라면 깨달음의 향기가...

산문 안과 밖 '연결고리'

'스님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수행이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스님들의 일상사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시켜주고, 불교의 가르침은 생활 속에 숨어 있으며 스님은 수행자이면서 친근한 우리의 이웃이자 벗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참법. 법정스님의 <소유> 이후 꾸준히 출간행렬을 이어나가고 있는 스님들의 수상집이다. 이 수상집들은 스님들이 출가, 수행, 포교 과정에서 직접 겪은 생활의 이야기들을 손직하고 재치있게 그려내 탁작한 불교교리서를 통해 불교를 무작정 어렵다고만 느끼는 일반인들을 불교에 한걸음 다가서게 한다. 또 불자들에게는 난해한 법문보다 더욱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렴풋이 이해하게끔 이끌어주는 대중적인 불서로 정착하고 있다.



'기도' '힘든 세상...' 등 인기 수행·포교과정 솔직하게 전달

원지(원지)에 이어 올해 초 <힘든 세상, 도나 님>(가서원)을 발간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수상집은 스님 자신에게 감명과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준 30여명의 독특한 스님이야기를 담담한 필치로 엮어냈다. 현진 스님(청주 관음사)도 지난해 펴낸 학인사질의 생활담과 지대방 이야기를 실은 <사발하는 날>에 이어 올해 포

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최근까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협회 총재로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 온 조장관스님이 정정산문에서 바라본 참된 삶에 대한 사유를 <삶의 새맛(부다가야)에 옮겨 담았고, 불교신문사장 정홍수스님이 <천수천안>(출판사)을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포교의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해온 이야기들을 모아 <천년을 향기로운 생명으로>(여래)로 펴냈다.

이밖에도 <병어리 절간이야기>(종광, 기린원), <이젠 마음비우거라>(혜인, 삼파곡), <검장에서 배운 인생>(삼중, 태일출판사), <그냥 살래? 바꾸고 살래?>(법륜, 모색), <바람의 길>(지현, 민족사) 등 수상권에 이르는 스님들의 수상집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청정한 삶을 지향하는 수행자의 모습에서 현재의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독자들의 반응처럼 지금 자신의 정해진 삶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율가를 스님들의 수상집을 통해 생활의 지혜와 깨달음의 그윽한 선향을 음미해 보기를 권한다.

이은자 기자

위빠사나 수행법의 모든것 법산스님, '중도선' 펴내

<중도선>은 위빠사나 수행법을 우리말로 소개하면서 저자인 법산스님(은혜사)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임의로 붙인 명칭이다. 이 책은 <대념처경>의 해설을 중심으로 위빠사나 수행법을 담았다. 이 책은 전체 4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장은 싯달타 태자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수행과정을 살펴본 것으로, 나고 죽는 것에 대한 고인의 과정과 출가, 그 이후 여러 스승들과의 만남과 시행착오의 과정, 그 와중에서 어느 정도 수행의 진보를 이루나 끝 한계에

분착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밖에 의지할 데가 없음을 깨닫고 홀로 수행정진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제2장은 그러한 깨달음의 내용을 4성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제3장은 이 책의 중심이 되는 장으로 <대념처경>에 대한 해설과 그에 따른 수행법을 이루고 있다. <대념처경>은 남방불교에서는 현재까지도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는 경전으로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그 실상을 꿰뚫어 깨닫게 하는 명상법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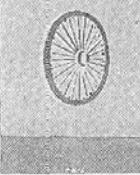
러나 실제로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저자는 대념처경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행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수행방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몸, 느낌, 마음, 법을 어떻게 관찰하고, 또한 어떻게 마음을 쉼길 것인가를 호흡이나 자재, 명상 등의 방법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몸과 마음의 현상을 구분하여 알아차리는 명색(名色)로부터 모든 애착이나 집착 갈망에서 완전히 무소유와 절대평등의 이라한과에 이르기까지의 해탈에 이르는 16가지 관문의 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장애, 이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이 명상법의 중국적 변용인 조사선에 대해 그 발전과 쇠퇴의 역사적 과정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은)

中道禪



새로 나온 책

▲행복을 향한 구도의 불꽃=경북 영천시 충효사 주지 해공스님의 두번째 법문집이다. 이 책은 세상을 살아가며 맞부딪치게 되는 고통들을 불법으로 극복해 나아가 한다는 주제 아래 '좋은 인연을 맺는 지혜' '착한 공덕을 쌓는 지혜' '건강하게 사는 지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지혜'를 상세하게 말한다. (솔바람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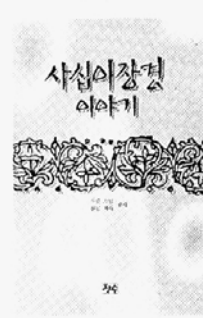
▲단식이야기=건강하고 희망찬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단식을 통해 심신의 활력을

되찾도록 이끌어 주는 책이 <단식이야기>다. 총체적의학에 관심을 갖고 지난 30년간 단식요법을 연구해온 내과전문의 의학박사이자 시인인 임평모씨가 저술했다. (자료원 8천원)

▲천년을 이어온 겨레시조=한국불교문학협회 회원인 시조시인 차경섭씨의 시조집이다. 시조문학의 침체기에 우리의 전통시조자 정형시의 전통계승을 위해 출간된 이 시조집에는 '번뇌' '낙산사' 등 불교적 정서의 시조를 비롯 우리 전통정서를 담은 73편의 시조가 담겨있다. (영하 7천원)

사십이장경 이야기 지문·현림 공저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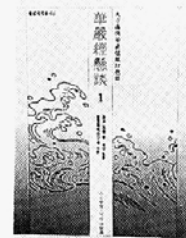
현실고통 극복방법 비유통해 제시

인생의 무상함을 바로 알아 참 부처의 길을 갈 것을 제시한 것이 불교다. 그런 가르침이 8만4천법문이다. 불교의 여러 경전중의 하나인 <사십이장경>은 이 8만4천 방대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수행에 관한 말씀을 여러 경전에서 선택해 42장으로 정리해 놓은 경전이다. 근본불교의 사상을 대변하는 <아함경>과 <법구경>이 주로 인용됐으며, 일심(一心) 법문의 사상이 관통하고 있다. 지문스님과 현림거사가 공저한 이 <사십이장경 이야기>는 현실 세계의 고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간명하고 적절한 비유를 통해 가르쳐 준다. 간결하면서도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잘 아우르고 있어서 옛부터 불교의 입문서로 애용돼 왔다. 이 책은 이러한 <사십이장경>을 해학과 소어(笑語)를 곁들여 해설하고 있다. (불교시대사 8천원)

승가대 불전국역원 첫 산물

'화엄경현담 1' 번역 발간

승가대 불전국역 연구원(원장 해남)에서 불전국역총서 <화엄경현담1>을 번역 발간했다.



불전국역연구원 제1회 졸업생들이 졸업기념으로 펴낸 이 책은 당나라 청량각사 직관이 지은 <화엄경소초>의 현담부분을 번역한 것으로 불전국역연구원의 첫 산물이기도 하다.

현담이란 경의 본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그 경전의 개요(綱要)를 정리해 놓은 것으로 옛날 스님들이 대부분 경전을 강의하기에 앞서 현담을 설하였고, 지금의 해제에 해당한다.

현담은 <화엄경>을 1. 고기인연(起起因緣) 2. 장교소설(藏教所攝) 3. 의리분제(義理分齊) 4. 교소피기(教所被機) 5. 교체심천(教體深淺) 6. 중취통국(宗趣通局) 7. 부류통회(部類通會) 8. 전역감통(傳譯感通) 9. 총석경제(總釋經題) 10. 별해문의(別解文義)의 심문으로 나누어 화엄경의 개요를 설명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번역한 제1권은 이 심문이 나오기 전의 왕복서(往復序)만을 해석했다.

불전국역연구원은 앞으로 이 <화엄경현담>을 순차적으로 번역발간할 계획이며, 화엄학 연구자료로서의 학술적 가치외에 우리불교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볼서 10

책방 역사인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효 립
2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틱 낙 한	한 민
3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	탄 허 교 립	교 립
4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5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6	한글아함경	고 익 진	동국대출판부
7	원효	고 영 섭	한길사
8	인연(작은책 3)	서 정 주	민족사
9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	유 흥 준	창작과 비평사
10	밤 그릇이나 씻어라	이 은 윤	자작나무

구입문의:(02)737-0695

출판가소식

지장기도 길잡이책 나와



지장기도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지장기도 그리고 영가 천도> (지장신앙

전법회)가 출간됐다. 한국불교 원각종 지장암 포교원 주지 진관스님이 집필한 이 책은 지장보살과 지장기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천도기도와 인연공덕, 지장기도시에 행하는 지장예문 및 왕생기도문과 지장기도 영엄복을 담았다. 지장신앙과 이 책의 법공양에 관심있는 이들은 지장신앙전법회로 문의하면 된다.(062)232-5774

작년 신간불서 193종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최근 펴낸 <97 출판연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새로 나온 책 총 2만6천6백64종 가운데 불교서적은 193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3종의 불서 가운데는 사찰에 관한 내용이 67종으로 가장 많았고, 교리철학과 관련된 책이 37종, 법어와 신앙생활에 대한 책이 32종을 차지했다. 또 전체불서 가운데 27%에 달하는 52종이 외국 번역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서적 전체 1,718종 중에서 불서는 단 11%에 불과한 반면, 기독교계 서적은 불서의 6배에 달하는 1,113종이 새로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지난해 3월 현재 출판협회에 등록된 불교간행물은 221종으로 종교간행물 1,718종 가운데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율하 스님을 비롯한 33분/르스님/범어/모음집

이 시대에 빛이 될 현존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범어집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을 말로 삼는 우리들의 르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살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르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을 말인 까닭이다.

삶은 고퍀가 아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빛어낸 깨달음의 노래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빛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古)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경전 읽기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필만 사천 경전을 가로지르는 통쾌한 해설! 불교 교리 전반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비유! 경전에 입각한 수행 방편의 제시!

사람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났으며, 정법을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성취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한다. 가다가 산이 막히면 넘고, 강을 만나면 건너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건너고 미망과 짐착을 깨뜨려야 한다. 무엇으로 건너고 무엇으로 깨뜨릴까? 반야의 배(般若船)로 건너고 금강의 갈(金剛槌)로 깨뜨려야 한다. 반야의 배요, 금강의 갈. 그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제이다.

- 본문 중에서 -